

# CONTENTS

##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동게스와리**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 최기진
- 10 **살라맛, 민다나오**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요 | 최정연

## 국내소식

- 12 **사람이 있는 풍경**  
따뜻한 손길로 채워지는 마음 | 편집팀
- 14 **JTS가 만난 사람**  
무조건 행복을 나누어요 - 김여진 | 강선미
- 18 **특집 기획**  
동게스와리와 JTS - 인도JTS 15주년 (1)교육지원 | 편집팀

## 나눔회원소식

- 22 **행복 나누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 정태호 | JTS 회원팀
- 24 **새나눔회원 한마디**  
오늘 첫 만남입니다 | JTS 회원팀
- 25 **활동터 소식**  
국내 • 인도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29 **나눔회원 알리판**  
명단확인란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1,200여명 불가촉천민이 사는 버려진땅-동게스와리-에 자립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 건축 기술자가 되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 동게스와리 아이들, 100% 유치원 보내기

다양한 JTS 사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사업이다. 이 지역 중 천민이 사는 12개 마을은 취학률이 높지 않고, 마을 내에서도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공부하기보다는 산에 가서 돌을 깨어 돈을 벌어야 하거나, 여자아이의 경우 집에서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이나 수자타아카데미에 등록을 해도 제대로 학교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개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캠프를 하게 되었다.

### 동게스와리 교육 환경

16개 마을의 구성을 보면, 모라탈과 빠레와는 대부분이 양민들이고 주위에 천민거주지역(하리잔 툴리)이 있다. 이 두 마을은 양민들은 제외하고, 천민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캠프를 하였다. 양민들의 경우 개인과외하거나 정부학교에 잘 다니고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는 따로 캠프가 필요 없었다.

방갈비가와 까나홀은 양민마을로 이미 유치원 등록이 100%가 되어서 이번 교육캠페인에서 제외되었다. 이 마을 분위기는 아이들은 공부시켜야 하며, 아이들이 학교가지 않으면 주변 어른들이 학교가라고 할 정도이다.

나머지 12개 마을 - 아마르푸르, 안투비가, 아자드비가, 바가히, 가왈비가, 두르가푸르, 자그디스푸르, 만코시힐, 스리람푸르, 소라즈비가, 산띠나가르-은 천민이 최소 80%인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10세-15세 아이들 가운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들이 손꼽을 정도이다. 지금 4-6세 아이들은 유치원에 많이 다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이번 교육캠프의 중요목표는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서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 캠프를 시작하기까지

18세면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 40세 이상이 되면 벌써 할아버지이다.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줄 알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마쳐야 한다.

지난 2월 마지막 주부터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 리더(6-8학년, 현재 16개 마을 유치원 교사)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유치원의 동네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JTS 마을개발팀에서 지원한 자료로 조사하였고, 4-6세 어린이가 있는 집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며, 적어도 초등학교 2학년은 마쳐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방문하여 설득한



### 동게스와리- '버려진 땅' 이라는 뜻입니다.

인도 내륙의 보드가야 근교에 위치한 16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 동게스와리는 인구 12,500여명으로 주민 대부분이 불가촉천민들입니다. 땅은 척박하여 연중 3개월 정도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외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연극을 보는 학부모들

효과로 14개 마을, 18세-40세 주민 1,720여명이 모여 교육캠프를 진행하였다.

**교육캠프 당일 모습**

이번 교육캠프 프로그램은 수자타아카데미 출신 스텝과 건축 인턴 스텝, 그리고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산만해짐을 막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래로 시작했다. JTS의 건축 인턴스텝인 데브라즈가 직접 만든 기타로 연주하며 노래하고,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열심히 연습한



**데브라지의 경험담**

나는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JTS 건축파트에서 일하지만 어떤 보고서를 받거나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야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어디 가려해도 글을 몰라서 티켓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열차를 타고, 몇 시에 도착하고, 어느 플랫폼을 이용해야할지 모릅니다. 배우지 못해 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공부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겪진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 것입니다.”

노래였다. 강사로 초빙된 가야 JSS센터(기술교육센터)의 의장님과 책임자의 강의가 바로 이어졌다. 마을주민들은 몇 시간 강의 듣는 것을 힘들어 했다. 강사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또 아기들이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짠 오줌을 닦는 사람 등등 분위기가 산만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강사에게 집중하여 한마디 한마디를 귀를 귀울리려 애쓰기도 했다. 수자타아카데미 졸업생들에게겐 공부야 당연한 일이어서 강의에 익숙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을 주민들

않았나싶다. 다음은 글을 몰라서 겪은 경험담 나누는 시간이었다. 건축 인턴 스텝인 데브라즈와 바브랄의 경험담은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인 촌극이 시작되었다.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들이 틈틈이 연습하고, 대본도 수정하면서 구상한 촌극에 산만하게 흩어졌던 분위기는 무대로 집중되었다. 우는 아이도 없고, 주변 사람과 잡담하는 사람도 없이 촌극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사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집중하였다. 연극에 참여한 학생들도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



에게는 의 무적으로 다가가지

여러분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으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인도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제때 배운다면 여러분 아이들의 생활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꼭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이제껏 1,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구호품 지급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진행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좌 - 구호품을 기다리는 질서정연한 마을 사람들, 우 - 학생들이 틈틈이 연습하며 마련한 촌극

### 14개마을 100% 유치원 등록

이렇게 JTS와 수자타 아카데미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기울이고, 뜻을 모은 때문인지 2009년 유치원 등록은 파악이 될 뻔 모라탈과 빠레와 지역을 제외한 14개 마을은 100%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 마을 주민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의 1,521가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였다. 한국에서 보내온 옷감 천을 같은 크기로 잘라서 참가자 1인당 1개씩 지원하였다. 그리고 마침 “대만삼의구화산대홍선사”란 단체에서 춘궁기를 맞아 어렵게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 모두에게 가구당 밀가루 30kg, 겨자오일 1리터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더불어 교육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쿠폰도 함께 지원하게 되었다. 구호품은 3월 24일 1,521 가구에 지원되었다.

### 달라진 동게스와리

마을 주민들에게 수자타아카데미에 오면 줄을 맞춰서 앉고, 차례를 지켜야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는 어디 서고 마을주민들에게 ‘라인 썸(줄을 맞추다)’ 하면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며 ‘라인 썸’ 하면서 정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끼어드는 사람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낼 때 이제는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15년 동안 꾸준히 마을사람들을 교육한 효과였다. 구호품 분배할 때 우연히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제껏 1,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구호품 지급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진행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며 놀라워했다.

이번 교육캠프는 수자타아카데미 10학년까지 졸업한 후 처음으로 JTS의 정식스텝이 된 라홀과 아르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상급생 리더로 오전에는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고, 오후에는 중학생이 되어 수업 받는 학생들이, 마을주민들에게 교육이 필요함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노래와 연극을 준비

하고 연습하였다. 마을주민들은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가 있었다. 그리고 건축파트의 인턴스텝들은 곳곳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 희망이 현실로

교육은 누구에게나 참 소중하다. 수천년 동안 배우지 못한 이 동게스와리 지역 사람들이지만 JTS의 지난 15년간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질서를 몸에 익히고, 아이들의 교육에대한 필요성도 인식해가고 있다. 지난 2001년 처음 성지순례로 수자타아카데미를 방문했을 때 몇 천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받기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생각난다. 질서는 생각해볼 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천여 명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을 본다. 조금씩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동게스와리에서 희망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음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

글 최기진 인도JTS 마을개발팀

### 촌극 : 읽을 수 없어 일어난 피해



한부부는 가난하지만 아이를 수자타아카데미에 보내 공부시킨다. 어느날 우편배달부가 문맹인 부모에게 아이의 편지를 전해준다. 부부는 글을 모르기에 배달부에게 읽어달라고 했고,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운다.

아이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2,000루피가 필요했다. 부부는 돈을 구하러 부잣집에 간다. 부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금이나 은, 땅을 저당 잡는다. 돈을 빌려주면서 3년 후에 갚으라고 하면서 2,000루피를 빌려준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다리를 다친 게 아니고 멀쩡하다. 그래서 바로 빌렸던 돈을 갚으러 갔는데 3년 후에 갚으라고 한다. 그래도 갚으려고 하니깐 20,000루피를 갚으라 한다. 2,000루피를

빌렸고, 증인도 2,000루피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20,000루피를 갚느냐고 하니깐 문서를 보여주면서 아들에게 확인하라고 한다.

아들이 보니까 20,000루피로 적혀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0루피를 갚는다.

만약 이 부부가 공부를 해서 글을 알 수 있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라도 공부를 시켜서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요

탈라각 특수학교 및 8개 학교에 물품 지원

3월 6일 이원주 필리핀JTS 대표와 함께 탈라각 특수학교에 컴퓨터 2대와 프린트 1대를 전달했다. 특수학교 농아들과 선생님들의 특수아동 수업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었다. 또 가방, 우비와 우산 등을 학교 별로 지원하였는데 일정별로 보면 19일 바구아 잉우드, 20일 바갈랑잇, 21일 탐파란, 22일 빅바니실론, 23일 만타부, 깔라수안, 26일~27일 까나안, 28일 알라원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한편 29일 방문한 무나이 핀돌루난에서는 교실 2칸의 증축공사 진행을 확정할 수 있었다.

## “What a nice day!”

3월 26일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한 해 수업을 마무리한 까나안학교의 종강식에 참가하고 가방, 우산, 우비도 나눠주고, 함께 모인 학부모님들과 마을 회의도 열어서 교실 2칸의 증축에 관한 논의도 할 수 있었다. 이곳은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곳 중의 하나라 늘 각오하고 가는 곳인데, 그 지도자인 엘리스와 씨니보이의 마을개발에 대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태도에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 지역은 라나오 델 수르의 경계지역이고 이곳도 모로무슬림해방군이 오가는 길목이라 조심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단 씨니보이와 엘리스가 괜찮다고 하여 안심하고 다닌다. 이날 가방과 우산, 우비를 받은 아이들이 “What a nice day!”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 먼 길의 피곤이 다 갔다.



만타부, 깔라수안, 바구아잉우드, 바갈랑잇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신기해하는지...

##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

받은 가방이나 우산을 꼭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 재밋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줍은 듯 웃다가 가끔씩 “살라맛 (고맙다)”이란 말을 하면 ‘아, 이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언젠가는 아이들과 좀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야겠다’ 싶었다. 지금은 늘 공사 모니터링이나 물품 지원으로 이곳저곳 하루 이틀씩 다니는 것이 전부이지만...

## 격전 이후 더욱 척박해진 마을들

한편 다른 무슬림 지역들인 바구아잉우드, 탐파란, 빅바니실론, 무나이핀돌루난은 지난해 8월부터 모로무슬림해방전선(MILF)과 정부군의 대치로 방문이 어려웠는데, 최근 피난간 주민들이 돌아오고 지역별로 안정되어 JTS가 지원한 학교와 학교 공사 예정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

오랜만에 둘러보는 이 지역들은 얼핏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불탄 자리, 집이 무너지거나 빈집만 덩그러니



있거나 아직도 피난민촌에 텐트치고 사는 몇몇 가구들이 보였다.

만성적으로 피난가고 또 다 털린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가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먼 산길 도로의 먼지들처럼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격전이 일어나는 조짐이 들면 먼 친척집으로 피난가거나 지방정부청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조용해져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 남아있는 가재도구나 가축들은 없다. 이런 일은 MILF도 정부군도 다 마찬가지라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척박해진다.

## 희망의 씨앗, 아이들

이런 어른들의 생활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실에서 받은 가방이나 우산을 들고 사진기 앞에서 뽀뽀하는 남자아이, 우산을 양산으로 쓰고 피약벌에 종알거리며 삼삼오오 걸어가는 여자 아이들을 보았다.

아직은 정규교사가 없어 일 년에 반 밖에 수업을 못하거나 그보다 더 적게 수업을 하고, 부모들이 아직은 아이들을 공부시키기보다는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결석률이 많다 하더라도, JTS의 이런 작은 지원들을 계기로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한번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글 최정연 필리핀JTS 활동가

# 따뜻한 손길로 채워지는 마음

울산지역 어르신 봄나들이

글 편집팀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살가운 손길

지난 4월 6일 두북 정토마을 부근 13개 마을 238명 어르신들의 즐거운 봄나들이가 있었다. 팔공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아미타불이 항상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거조암을 둘러 은혜사, 사일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즐거운 춤과 노래도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종일 봄꽃의 냄새는 코를 간지럽히고 어르신들의 밝은 대화들과 웃음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었다. 또한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어르신들을 위한 살가운 손길과 열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과 노인 공경의 자세가 저절로 일어나게 하였다.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은 마치 친딸과 부모처럼 친숙했고 손을 잡고 팔장을 끼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마음으로, 섬세한 보살핌으로 이어지는 손길은 분명 무언가 있었다.

JTS는 이 날 나들이 나온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끈끈한 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았다.

## 어르신들 한마디

“한 열흘에 한번 와. 뭐하냐구? 남자들은 힘쓰는 일 하고 여자들은 오면 청소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하지. 어쩔뻔 반찬거리를 자기네들이 사와서 반찬해주고 가고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갖다줄 때도 있고 그래. 고맙지. 또 언제 오나 기다려지기도 한단 말여. 혼자 살아봐. 사람이 그리지. 난 다리가 아파서 걸레질을

못해, 방을 깨끗이 닦아주면 마음도 시원해.”


“고맙지. 나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성한데가 없어. 그래도 오면 일 시키기가 미안해. 그래도 일이 보이니까. 힘드니까 해달라하는 거야. 아무 소리도 없이 잘해줘. 어디는 거동 못하는 양반들 목욕시켜준다고 들었어. 참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거지.”

## 봉사자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집청소하고 옷이나 이불 빨래하고, 놀러볼은 설거지, 냉장고 청소 해드리는데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뿌듯하다.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그럴 땐 내 노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도 얼마 안남았구나, 외로워하지 않으려면 마음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도 해본다. 할머니에게 양치질해드릴땐 냄새가 나서 하기싫다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마음을 고쳐 먹는다.”

“독거노인 가정 봉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없이 잘 쓰여진다는 생각에 그 날 하루는 잡다한 생각도 없이 일을 하다가 집에 오면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냉장고 구석같은 데 더러운 것을 보면 본체만체하고싶고 그날 마음따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어느 날은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목욕 시키는데, 내가 일행중에서 오래 된 봉사자라 내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주저하면서 했다. 나중에 생각하니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다 내마음이 일으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분별심을 내기도 하지만 '다만 할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이어져있다고 한다. 비록 서로 처음 보는 관계라 할 지라도 그 만남에는 인연이 있는 법. 그렇다면 어르신들과 우리 봉사자들도 인연을 맺음으로 부모 자식간의 관계보다 더 두터운 정이 생긴 것은 명확한 일이다.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될 것이며 더 많아질 것이다. 이번 두북 어르신 나들이와 인터뷰를 통해 노년의 존엄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노인복지는 어때야 하는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풍악에 맞춰서 즐거워하시는 어르신

## 두북정토마을

경남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두북정토마을'은 1994년 9월에 문을 열었고, 농촌지역 노인복지 위한 정기적인 지원과 JTS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 정토마을의 운영은 부산과 대구, 마산, 울산 지역에서 온 자원활동가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무조건 행복을 나누어요

인터뷰 강선미

무조건 행복, 김여진님의 블로그 이름이다. 그곳에서 행복과 나눔의 즐거운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는 그녀.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온 후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남을 돕는 일이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가슴 뛰게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며, 봄꽃이 만연한 어느 날 그녀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번 기사를 보니까 연예인 생활의 힘든 점을 얘기하면서, 일에 집중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하셨는데, 봉사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순간순간을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연기도 생활이지만 한두 달 연기하고 다음 일을 할 때까지 남는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촬영 도중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이런 기다림의 연속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런 남는 시간들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도 보람 있지만,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란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기하는 일도 출연료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지만, 일 자체를 좋아하고 연기 자체를 즐기기에 어떤 경우에는 출연료가 작아도 그냥 하잖아요?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잘 쓰이고 나의 또다른 모습을 발견하면서 행복해하지요.

**연예인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나요?**

연예인으로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5월 5일 빈곤 퇴치캠페인 행사의 경우 저는 스텝으로 일해요. 단순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섭외하기도 하면서 내가 가진 다른 면을 발견해요. 그러나 '나는 연예인인데...' 하는 생각도 곧잘 들어요. 그럴 때 마다 그런 나를 잘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할 일을 한다' 라는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지난 1월 인도에서 열렸던 선재수련을 다녀왔는데,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셨고, 갔다 와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시간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작년 여름 북한 동포돕기 캠페인하고,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굶어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활동에 대한 욕심이랄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1달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재수련에 참가했는데, 일단 동계스와리의 수자타아카데미까지 가는 길이 힘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많은 짐을 들어야했고, 왜냐하면 JTS는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재수련 가는 학생들에게 일인당 짐을 배당해서 운반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비행기와 기차 그리고 버스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나름대로 즐기긴 했지만 말이지요.

수련은 참가한 80명이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기하고 명상하고 그러는 중에 봉사활동을 했어요. 무척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죠. 순간 집중하고 탄생각하지 않는 것, 그 습관은 몸과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단순한 일에 화나는 경우(내가 모르는 노래 부를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웠고 어린 친구들의 고민, 행동들을 보는 것도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수련과정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유치원 옆의 돌산에 길 닦는 일을 했는데 5일만에 완성했어요. 그리고 각 마을에 들어가서 유치원 보수공사(야외 수업장소, 담벼락, 우물 주위)를 했고. 갔다 와서는 많이 바빠졌지만 생활이 즐겁고 계속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일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졌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선재수련**  
 대학생정토회의 대표적인 국제 자원활동 프로그램이다. 인도, 필리핀 등 JTS 활동터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과 마음 수련을 경험한다.  
 대학생정토회는 국제자원 환경 평화활동으로 대안적인 20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임이다.  
 문의 : 02.587.8911  
 university@jungto.org



**배우 김여진**  
 김여진님은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 드라마 '이산, 그들이 사는 세상'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바쁘게 연기활동하는 가운데 국제구호단체 JTS 홍보대사이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http://kimyeojin.tistory.com)를 통해 '나눔과 행복'에 대해 네티즌과 소통하고 있다.

요. 그런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리 걱정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미래 걱정은 말고 그 생각을 돌이켜 가볍게 일을 해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JTS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신가요?**

3년 전 거리모금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대사로 되었어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홍보자원활동가지요. 공식적인 홍보대사는 탤런트 한지민님이 아닐까 생각해요.

JTS 홍보활동을 하면서 JTS라는 단체에 많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지요. 특히 인도에 직접 가서 JTS가 한 일(학교도 세우고, 마을 개발)을 보면서 대단하다 싶었어요. 동계스와리가 지구촌의 한 모델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JTS 활동은 거리모금이 큰 것 같고 지금 내 이름으로 하는 블로그 활동도 그 일환입니다. 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가볍게 시간을 내고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나누어 일해요. 특히 강연이나 행사 때는 가볍게 마음을 내고 내 뜻을 진솔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인도의 구걸하는 아이들, 시골 마을 할머니를 보는 순간 말은 안통해도 눈빛으로 마음이 오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마음에 벽을 만들지 않아 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기쁘고, 그래서 서로가 행복해지면 더욱 좋다는 마음으로 활동합니다.

**이후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연기도 열심히 하고, 그 연기 생활하는 중에 JTS 홍보도 하고, 행사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세운 원,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그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 그 원을 실천해야겠지요.

홍보대사로써 JTS를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은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후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 등계스와리와 JTS

인도 JTS 15주년 (1)교육지원

편집팀

## 인도 사업의 시작

인도에서의 JTS사업. 시작은 이사장인 법륜스님께서 인도를 방문하여 어린아이에게 분유를 사달라고 구걸하던 여인을 외면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뒤 길에서 따라오는 무수한 구걸하는 어린이와 노인들을 만나면서 이들을 지혜롭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 1993년, 전정각산의 유영굴로 오르면서 길에서 아주 많은 구걸하는 어린아이와 노인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아이들이 학교가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를 묻게 되고, 이곳엔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두르가푸르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학교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재료를 대줄 테니까, 자식들이 다닐 학교니까 노동력과 땅을 제공하라고 제안하면서 인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 “함께렇게”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마을주민 11명이 1가타씩 땅을 기증하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1993년 2월에 학교공사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나무 그늘 밑에서 수업을 받았다.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이 다닐 학교니까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게 했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내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를 함께 짓는데 참여하게 했다.

## 마을주민의 교육 인식

마을 사람들에게 뭘 해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가난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자기 마을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기 나라 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셈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만 벗어나게 되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일단 글을 알아야 위인전을 읽거나 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수자타 아카데미는 고등학교나 대학가는 것을 공부 목표로 삼아 세운 학교가 아니었고 초등교육이 기본이었다. 그런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책, 여름에는 슬리퍼, 비옷, 겨울에는 스웨터, 가방,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상으로 주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난한 아이들 부모들이 학교가 생긴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기초적인 생활이 안되니까 당장 먹을 것이 급해서 미래지향인 아이들 교육에는 관심이 열을 수밖에 없다.



유영굴 오르는 길, 구걸하던 등계스와리 어린이들.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등교해서 공부하는 유치원생들.

### 힌디교실

유치원에서 수자타아카데미까지 교육을 받지만 이 사이에도 시집을 갖거나 일찍 일을 하게 되어서 혜택을 못 받은 층이 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힌디교실을 연다. 힌디교실은 97년부터 끊임없이 열고 있는데, 지금은 대상 마을을 한정해서 시범마을로 아낙네들, 부녀자들 대상으로 힌디교실을 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내수공업이 될 수 있게끔 양초나, 나뭇잎 탈리 만드는 걸 도입하였다.

### 토요일은 특별 프로그램

토요일은 수업 없이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한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안 나오고 상급생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교내를 청소하고 회의를 한다. 아이들 중 교육팀은 수자타아카데미와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한다. 또한 함께 작업하는 시간과 시청각 교육도 하고 있다. 여러 의인이나 본받을 분들을 모셔서 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 늘 연구하면서

학교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병원의 리더들은 마을에 가서 드레싱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즐겁게 수업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하려하고 있다.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아서 특별 프로그램은 교사 위주로 한다. 공사파트 인턴들, 마을개발 리더를 중심으로는 짧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길, 그리고 자기 주인이 되는 길을 가도록 하고 있다.

### 계급과 상관없이 친구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어른들의 사고를 바꾸기는 참 힘들지만 아이들이 공부해서 마을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진행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의 현장에선 인력양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15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 처음에는 아이들은 마을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가까운 길도 피해서 돌아가야 했었는데, 마을과 마을이 서로 소통이 되고 아이들이 다 온다. 그러니 여기서는 천민과 양민 구분 없이 손잡고 친구가 된다. ✨

토요일에 특별수업 받는 학생들



수자타 아카데미 전경



#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정리 JTS회원팀

최근 경기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3년간 한결같이 JTS를 후원해주시며 나눔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 광운대학교 후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호님을 만나 보았다.

하루 종일 설 틈 없이 바쁜 가운데, 잠시 인터뷰를 청한 우리를 무척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식당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손님들과의 경쾌한 대화로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인터뷰하는 중에도 정태호님은 식당에 온 손님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피며 눈을 떼지 않았다.

식당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차림표에는 아름다운 글귀가 쓰여져 있다.

“행복의 씨앗, 행복의 씨앗은 사랑, 사랑의 씨앗은 감사”

아마도 늘 이런 마음으로 살기에 세상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가능한가 보다.

정태호님은 10여년전 법륜스님과 인연을 맺은 후 JTS를 알게 되어 인도 및 제 3세계를 후원하게 되었다.

당시 JTS에서 인도에 봉사자를 파견하여 인도어린 이들을 위해 학교도 짓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후원하면서는 자녀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부부가 모든 일을 접고 인도로 봉사를 가자고 약속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늘 마음에 남는다고 하신다.

정태호님의 삶은 봉사와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인과 함께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정토회에서 진행하는 남북화해의 평화를 위한 천일정진기간에도 참여하였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부터 한시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굶주리는 북한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소쩍새 마을에서도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부름의 전화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장애인들이 어둠속에서 머물지 않고 햇빛과 자연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늘 봉사와 후원을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건 본인 자신이라고 환하게 웃는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가장 보람되는 순간은 도움을 받은 이들이 성장하여 그들이 다시 누군가를 도와줄 때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요. 제가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의 장애인도 그렇고 JTS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의 아이들은 구걸하며 살다가 교육받은 후 다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한 정태호님은 혼자만의 실천에서 끝내지 않는다. 직장에 다닐 때는 주변에 북한 결연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돼지저금통도 분양해서 모금참여를 이끌어내었다. 또 회사에서 나오는 폐지들을 모두 팔아 돼지저금통에 넣기도 하였다.

지금은 식당일로 많이 바빠서 예전처럼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하는게 가장 아쉽다고 한다.

하지만 언젠든 때가 되면 다시 예전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한다.

어려움속에서도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태호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씨앗을 퍼뜨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



“행복의 씨앗,  
행복의 씨앗은  
사랑,  
사랑의 씨앗은  
감사”



후원회원 정태호님 부부

# 오늘 첫 만남입니다

정리 JTS 회원팀

JTS홈페이지 : <http://www.jts.or.kr>에 후원신청을 하면서 JTS에게 바라는 점을 기록한 후원자의 마음입니다. 잘 담아 활동하겠습니다.

우리 딸(경해리 초등학교 6학년)이 생일선물을 받지 않고 북한어린이들을 돕는데 기부하여 달라고 하여 보냅니다.

경창수(2/17)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 세상에 가난과 전쟁과 질병이 없는 그날 까지 파이팅입니다!

배은경(3/12)

북한 어린이를 위해 정직하게 일해주세요. 후원의 마음이 어떤 길로 어떻게 가는지 후원자는 모릅니다. 꼭,,,,,정직한 약속이행 부탁드립니다.

최문주(3/14)

불교는 너무 자기 성찰에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를 실천하는데 종교와 나라를 불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희(3/16)

아이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꼭 쓸모있게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날이 오긴 오겠지요...

전소울(3/16)

북한어린이돕기사업이 꼭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전부터 생각은 하고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지난주 북한관련 교육을 받고서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상웅(3/23)

의미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하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어 봅시다!

김현정(3/28)

## 국내소식



###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거리모금 캠페인 벌여

3월 28일 아름다운 가게(홍대점)가 주최하는 문화 장터 한마당 행사에 JTS 자원활동가들과 초·중·고 50여 명의 학생, 사프론 어머니회 어머니들과 제3세계 빈곤, 문맹 퇴치 거리 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홍대 앞에서 이뤄졌는데 200,800의 거리 모금액과 문화 장터 판매액 559,400의 성과를 거뒀다. 아름다운 가게 홍대점은 이 소중한 금액을 JTS에 기부하였다. 특히 이날은 JTS 홍보대사 배우 김여진씨도 참여하여 빈곤 퇴치를 위한 모금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 날 모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다.

### 한살림 용인성남지부, 북한어린이돕기 기금 JTS에 전달

2009년 3월 20일 한살림 용인성남지부는 한달간의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행사로 모은 성금 2,030,000원을 JTS에 전달하였다. 이날 '한달간의 모금기간 동안 조합원들도 남을 돕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행복 한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런 행사를 가질 것이다' 라는 한살림 용인성남지부 이사장님은 조합원들의 인사말을 대신 전했다. 동포를 생각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 오남중학교 학생, 거리모금 캠페인 참여

3월 21일 오남중 여학생 11명은 남부터미널 앞에서 JTS자원활동가와 제3세계 빈곤퇴치캠페인을 했다. "처음엔 어렵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으나 거리모금을 할수록 목소리도 커지고 재미 있었다" 모금에 참가한 학생의 소감이다. 이날 158,900원을 모금했으며 이 모금액은 JTS에 전달했다. JTS는 이 모금액을 인도 및 제3세계 어린이들의 빈곤, 문맹퇴치를 위한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모금에 동참

해 주신 오남중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해외현장활동 보고회

4월 21일 JTS 강당에서 인도와 스리랑카 사업현장의 보고회가 있었다. 인도현장의 건축노동자교육과 인도문화와 생활전반에 대해, 그리고 스리랑카 문화와 농업지원현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 참여형건축 간담회 개최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참여형 건축방식을 통해 바라본 JTS개발구호의 철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도회의 국내외 건축관련 실무담당자와 자문위원, 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형 건축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문경의 불사현장과 필리핀과 인도현장의 주민참여형 건축현황과 현지의 특수상황,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험되고 있는 저가의 친환경적인 순환시스템에 대한 정보교류, 장기적인 개발계획수립과 지역전통 문화를 수용한 건축형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토론에 대한 열기는 후속모임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였다.



# 인도소식



### 수자타 아카데미 어머니회 결성

지난 2월, 3개 마을 안투비가, 아자드비가, 가왈비가에 수자타 아카데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회가 결성되었다. 60여명으로 구성된 회원은 힌디클래스 운영과 마을주민의 출생, 사망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의 수입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공예도 익힌다.

3월 2일부터 마을마다 20명이 힌디클래스를 열어 매일 두 시간씩 힌디어와 산수수업이 진행되고, 하루 평균 14명, 12명이 수업에 출석하고 있다.

### 양초만들기

4월 8일부터 1주일간 수자타아카데미와 안투비가유치원에서 가야의 시민단체 JSS 센터의 교사가 초빙되어 양초만들기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꿰어 양초틀에 부어 식히기만 하는 단순작업이어서 참가한 어머니들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이곳에서는 이 양초만들기가 작지만 가계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

### 힌디클래스 전체모임

4월 6일, 어머니회 힌디클래스 전체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총 72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3월 한달간의 개근자와 하루 결석한 정근자에게 포상으로 선물을 지급하고, 공부한 3월 수업내용에 대해 시험도 치루었다.

### 지바카병원 앰블런스 도입과 이동진료 시행

앰블런스 도입을 축하하는 자리가 지난 4월 7일 지바카병원에서 스태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서울 로터리클럽이 지원한 이 앰블런스는 응급환자 이송과 정기 결핵환자 검진, 백신수급, 이동진료서비스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4월 10일에는 아자드비가 분교에서 이동진료서비스가 진행되었다. 결핵에 대한 교육과 간단한 병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에는 약 1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하였고, 이날 총 30명의 환자들이 무료진료를 받았다. 이동진료는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극빈자 구호활동

지난 3월 7일 토요일, 인도의 큰 명절인 홀리푸자를 맞아 인도JTS는 마을의 극빈자들에게 구호물품을 배분하였다. 16개 마을 41가구 102명에게 나누어준 구호품은 쌀 510kg, 달 153kg, 머스타드 오일 31리터와 영양제와 관절염약, 눈약으로, 독거노인, 과부, 장애인 가족들 모두가 따뜻한 새해를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

### 보건위생교육

4월 11일-14일 가왈비가, 아자드비가 두 마을의 힌디교실에서는 여름철 보건위생교육이 진행되었다. 신발 신기기, 균형있는 식단, 여름철 설사,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한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적극적인 질문으로 활기차게 진행된 이 보건위생교육으로 좀더 건강한 어린이, 건강한 마을로 거듭날 수도록 예방치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자그디스푸르 유치원 기공식

지난 3월 21일 자그디스푸르에서 마을주민과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증축 기공식을 가졌다. 현재 3690로타리클럽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는 건축부와 마을 쉬람단을 통해 교실 1칸과 사무실 1칸을 추가로 짓고 있다.



# 스리랑카소식

**법륜이사장님 라장그너여지역 농업용 수로 및 저수지 복구 현장방문**  
 JTS 이사장 법륜스님은 지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스리랑카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아누라다푸라 근교 라장그너여지역에서 JTS가 지원한 농업기반시설인 농업용 수로, 농업용 탱크(저수지)를 복구한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사람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업용수로 지원을 통해서 25여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땅에 올해 처음으로 벼농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약 20에이커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고, 다음 시즌(알라시즌)에는 약 45에이커의 논에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물탱크 복구를 통해서 다음 시즌부터 약 60에이커의 땅에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스리랑카 내전상황에 대한 우려로 법륜 이사장은 각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리랑카의 평화와 남북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직접 노력한 경험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스리랑카 내전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인 25만명을 살리기 위해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사장은 스리랑카 지도층인 불교지도자들에게는 타밀반군(LTTE)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타밀지도자들에게는 타밀반군에게 요청하여 지원되는 식량이 어린이, 노약자, 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는 약속을 받아주도록 조언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최소한 현재 억류되어 있는 민간인 25만 명이 무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각계지도자들은 정부와 타밀반군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캄보디아소식

## 콕크라삼마을회의 진행

캄보디아JTS는 지난 3월31일 정철상 대표님과 박주선을 비롯한 현지 자원활동가 6명과 김경희님(스리랑카JTS활동가)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이벵주의 콕크라삼 마을에서 학교건축을 위한 사전모임을 가졌다. 콕크라삼 마을이장 및 마을리더들과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모임은 전체주민과 하는 마을공동체회의와 마을리더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학교건축을 할 것인가를 최종점검하는 시간이었다. 마을주민회의에서는 먼저 JTS에 대한 소개와 사업진행원칙, 학교건축 내용을 설명하고, 학교건축에 대한 전체주민의 동의를 확인하였고, 마을리더회의에서는 공사시기나 기술자 및 자원봉사자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약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 명단 확인란

2009년 2월 1일~2009년 3월 31일

3/27 11신영진 30,000 2/5 감사합니다 5,000 3/5 감사합니다 5,000 3/31 강건 20,000 2/20 김미란 10,000 3/20 김미란 10,000 3/2 강봉희 40,000 3/30 강봉희 40,000 3/23 강세환 5,000 3/25 강세환 5,000 2/4 강정순 100,000 3/7 고수정 30,000 2/11 고인순 10,000 3/11 고인순 10,000 3/5 고진영 20,000 2/25 곽미미 10,000 3/25 곽미미 10,000 2/26 구미정 30,000 3/26 구미정 10,000 2/25 구영미 3,000 3/25 구영미 3,000 2/6 구태원 30,000 3/25 국립삼량원 85,000 2/20 권영경 30,000 3/10 권영경 30,000 2/20 권영미 2,000 3/20 권영미 2,000 2/27 권혁준 10,000 3/27 권혁준 10,000 3/10 금여 500,000 2/16 기차길영적은학교 550,000 3/25 김금옥 150,000 2/2 김갑순 5,000 3/2 김갑순 5,000 3/31 김갑순 5,000 2/18 김경락 30,000 2/26 김계남 1,000 3/26 김계남 1,000 2/5 김기환 100,000 3/5 김기환 100,000 2/20 김길중 20,000 3/20 김길중 20,000 3/10 김대하 10,000 2/2 김덕희 10,000 3/2 김덕희 10,000 3/25 김동문 20,000 2/17 김동선 30,000 2/20 김랑 30,000 3/5 김명선 20,000 2/23 김명지 30,000 3/23 김명지 30,000 2/18 김영희 10,000 3/18 김미경 10,000 2/26 김미현 10,000 3/24 김미현 10,000 3/3 김민정 50,000 2/10 김보경 1,000,000 3/10 김보경 1,000,000 2/5 김복순 10,000 3/6 김복순 10,000 2/9 김선경김진우 50,000 2/3 김승호 111,440 2/25 김수연 5,000 3/23 김수연 20,000 3/25 김수연 5,000 3/9 김승하 10,000 3/26 김승훈 30,500 2/6 김연권 10,000 3/3 김억권 10,000 2/25 김연옥 10,000 3/25 김연옥 10,000 2/2 김영림 100,000 3/3 김영림 100,000 2/10 김영애 10,000 3/10 김영애 10,000 2/9 김영진 20,000 2/11 김예래 10,000 3/10 김예래 10,000 3/5 김옥경 20,000 3/2 김원희 10,000 3/30 김원희 10,000 2/24 김지민 10,000 3/2 김지민 10,000 2/16 김정수 20,000 3/26 김정수 20,000 3/31 김경애 150,000 2/9 김경자 100,000 2/11 김정희 20,000 2/24 김중민 100,000 2/25 김중심 10,000 3/25 김중심 10,000 2/16 김태구 30,000 3/17 김태구 20,000 2/6 김태민 30,000 3/20 김태민 40,000 2/10 김현우 20,000 3/10 김현우 20,000 2/6 김효철 500,000 2/15 김효철 200,000 3/11 김효철 50,000 2/13 김희자 10,000 3/6 김희자 10,000 3/3 남재환 20,000 2/16 남정욱 20,000 3/16 남정욱 20,000 3/1 남지희 10,000 2/10 노재성 10,000 3/30 노재성 10,000 2/22 대한불교조계 10,000 3/2 대한불교조계 10,000 3/31 대한불교조계 10,000 2/29 류수지 50,000 2/25 류희연 5,000 3/25 류희연 5,000 3/3/5 무상정사 50,000 3/5 무상정사 50,000 2/12 문상인 100,000 3/2 문순재 25,000 3/20 문승영 10,000 2/17 문용규 50,000 3/25 문용규 50,000 2/25 문희경 10,000 3/25 문희경 10,000 2/6 문희영 50,000 2/26 민병도 30,000 3/27 민병도 30,000 3/3 박광민 50,000 3/22 박광민 50,000 2/20 박낙범 5,000 3/20 박낙범 5,000 2/7 박노현 200,000 2/7 박미란 20,890 2/20 박미희 10,000 3/20 박미희 10,000 3/2 박상기 10,000 3/30 박상기 10,000 2/5 박상아 2,000 3/2 박상아 2,000 2/9 박성현박성훈 30,000 3/2 박선영 10,000 3/30 박선영 10,000 2/4 박성심 30,000 2/14 박성심 30,000 2/15 박성심 100,000 2/22 박성심 10,000 2/6 박수현 20,000 2/20 박우돈 10,000 3/20 박우돈 10,000 2/6 박은숙 31,800 2/20 박인성 10,000 3/31 박정자 5,000 2/20 박혜영 10,000 3/20 박혜영 10,000 2/10 박현숙 20,000 3/3 박현숙 20,000 2/9 박현우 20,000 3/5 박희정 20,000 3/16 반성호 10,000 2/16 배명숙 50,000 2/23 배명숙 100,000 3/25 배명숙 50,000 2/16 배민철 20,000 3/16 배민철 20,000 2/3 배진 30,000 2/5 배진 30,000 2/10 백경희 10,000 3/6 백경희 10,000 3/20 백문재 50,000 2/5 백재에 20,000 2/20 백재에 20,000 2/5 북한기아사용 500,000 2/10 북한등기 52,000 2/21 북한등기 50,000 3/18 북한등기 50,000 2/4 북한어린이 20,000 2/17 북한어린이후원 10,000 2/12 서귀천 300,000 2/12 서귀천 100,000 3/12 서명숙 100,000 3/16 서요희 30,000 2/4 서보원 10,000 3/4 서보원 10,000 3/5 서선영 30,000 2/25 서은라 10,000 3/25 서은라 10,000 3/18 서재상 68,480 3/30 서태준 30,000 3/2 서현주 30,000 3/30 서현주 30,000 3/16 설성일 100,000 2/10 설정숙 200,000 3/10 설정숙 200,000 2/25 성경연 20,000 3/25 성경연 20,000 2/13 성경자 10,000 2/21 성불하 20,000 3/4 성불하 20,000 3/21 성불하 30,000 3/29 성불하 50,000 3/4 성정열 10,000 2/6 손영숙 20,000 3/5 손영숙 20,000 2/2 송우석 5,000 3/2 송우석 5,000 3/31 송우석 5,000 2/13 송유설 30,000 2/16 송현정 5,000 3/16 송현정 5,000 2/11 신미화 10,000 3/11 신미화 10,000 3/12 신비로운여인 20,000 3/17 신연규 40,000 2/2 신영희 20,000 3/2 신영희 20,000 2/25 신용옥 10,000 3/25 신용옥 10,000 2/6 신은경 10,000 3/6 신은경 10,000 3/2 신현정 10,000 2/18 신희숙 30,000 2/4 심재은 7,000 3/3 심재은 10,000 2/9 안가숙 5,000 2/12 안상삼 100,000 3/5 안상삼 214,290 2/25 안혜숙 10,000 2/25 안혜

09년 2월 1일부터 09년 3월 31일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주셨으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연말영수증이 발급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정보가 필요하니 꼭 연락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금액)

숙 10,000 3/25 안혜숙 10,000 3/25 양나래 10,000 3/30 양나래 10,000 2/17 양상숙 15,000 2/2 양종혜 40,000 2/1 양종이 5,000 2/23 여윤식 3,000 3/23 여윤식 3,000 2/5 역불사 420,000 2/7 역불사 30,000 3/28 영수정 60,000 2/9 영준형 50,000 2/2 여광현 100,000 3/3 여광현 100,000 2/26 여영주 10,000 3/19 여영주 10,000 2/20 연미경 5,000 3/20 연미경 5,000 2/13 오경희 5,000 3/10 오경희 5,000 3/16 오기훈 15,000 2/2 오다향 20,000 3/24 오숙정 300,000 2/11 우대석 500,000 2/6 유광호 15,000 3/6 유광호 15,000 2/20 유상혁 10,000 3/20 유상혁 10,000 2/2 유승민 50,000 2/3 유승민 70,000 3/3 유지일 60,000 3/30 유지일 60,000 3/11 윤상현윤수민 57,620 3/26 윤석만 30,000 2/16 윤영현 10,000 2/2 윤은주 30,000 2/23 이계삼 50,000 2/20 이광익 55,000 3/25 이광익 55,000 2/2 이남숙 10,000 3/2 이남숙 10,000 2/25 이남지 20,000 3/30 이남지 20,000 2/6 이두연 20,000 3/31 이만영 10,000 3/9 이상임 30,000 3/30 이상임 10,000 3/2 이선희 50,000 3/30 이선희 50,000 3/12 이상숙(경토상사) 30,000 2/23 이상숙 10,000 3/23 이상숙 10,000 3/1 이소영 90,000 2/27 이수애 20,000 2/5 이수진 10,000 2/21 이수진 10,000 3/19 이수진 10,000 3/31 이수진 5,000 2/17 이병래 120,000 2/23 이연용 10,000 3/23 이연용 10,000 2/9 이연숙 10,000 3/9 이연숙 10,000 2/25 이영선 10,000 3/25 이영선 10,000 2/25 이영애 10,000 3/3 이은희 20,000 2/16 이만식 10,000 3/16 이만식 10,000 2/19 이정연 10,000 2/20 이정숙 10,000 3/20 이정숙 10,000 3/25 이정숙 10,000 2/11 이종구 100,000 3/23 이주영 20,000 3/2 이주철 10,000 3/30 이주철 10,000 2/16 이춘래 30,000 3/16 이춘래 30,000 3/10 이현병 100,000 2/2 이현숙 40,000 2/10 이혜옥 10,000 3/10 이혜옥 10,000 3/9 이혜주 20,000 2/10 이화순 20,000 3/10 이화순 20,000 2/2 익명 10,000 3/2 익명 10,000 3/31 익명 10,000 3/2 임규리 10,000 3/30 임규리 10,000 3/2 임규원 10,000 3/30 임규원 10,000 2/2 임은주 20,000 3/2 임은주 20,000 3/31 임은주 20,000 3/2 임창숙 20,000 3/20 임창숙 20,000 2/11 임희성 100,000 2/3 정경숙 30,000 3/3 정경숙 30,000 3/17 장석래 20,000 2/9 장승연 20,000 2/27 장영순 10,000 3/27 장영순 10,000 3/31 장윤선 17,830 3/22 장진희 140,000 3/14 장필교 100,000 2/2 장현선 20,000 3/2 장현선 20,000 2/16 장기우 10,000 3/16 장기우 10,000 2/9 전우정 10,000 3/9 전우정 10,000 2/25 정경옥 10,000 3/25 정경옥 10,000 2/5 정계택 100,000 2/20 정계택 100,000 2/10 정규관 10,000 3/10 정규관 10,000 2/3 정동순 30,000 3/1 정동순 30,000 2/26 정미경 10,000 3/26 정미경 10,000 2/28 정미영(서울법당) 60,000 3/26 정선숙 100,000 2/25 정선영 10,000 3/25 정선영 10,000 3/27 정순임 60,000 2/2 정연선 5,000 3/2 정연선 5,000 3/5 정윤자 20,000 2/3 정은선 10,000 3/3 정은선 10,000 3/2 정진관 50,000 3/5 정창자 23,480 2/19 정명숙 5,000 3/19 정명숙 5,000 2/16 정현아 10,000 3/16 정현아 10,000 2/4 제3세계 20,000 2/10 조귀자 50,000 2/16 조영순 10,000 3/16 조영순 10,000 2/11 조영희 1,000,000 2/16 조미옥 10,000 2/13 주재용 10,000 2/23 주재용 5,000 2/17 진영애 20,000 3/27 진영애 20,000 3/21 천성희 10,000 2/10 최명일 5,000 3/10 최명일 5,000 3/9 최성진(아골타메탈루) 80,000 2/12 최우석 50,000 2/9 최은아 5,000 3/5 최은아 5,000 2/27 최은주 23,000 3/20 최희화 50,000 2/2 최희숙 10,000 3/2 최희숙 10,000 2/13 최지연 20,000 3/16 최중수 20,000 3/1 최태연 100,000 3/31 최태연 100,000 2/9 최형진 80,000 2/3 최홍선 20,000 2/1 하승훈 500,000 3/11 하창익 100,000 2/19 한대륙 15,000 3/19 한대륙 15,000 2/19 한만석 30,000 3/19 한만석 30,000 3/1 한규 10,000 2/25 한지애 20,000 3/25 한지애 20,000 3/5 함림사 21,480 2/11 허영화 50,000 2/20 허문순님 500,000 3/19 허전약국 47,850 2/2 홍영길 10,000 3/2 홍영길 10,000 2/9 황순옥 82,000 3/20 황순옥 50,000 2/24 황민철 20,000 2/6 황준성 20,000 3/27 황준성 10,000 2/18 후원금 10,000 3/18 후원금 10,000

#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09년 2월 1일~2009년 3월 31일

## 인도 및 제3세계

㉠김미성 P0037242 김미정 P0038010 강선미 P0024008 강수정 P0038595 강재민 P0038170 강창형 P0021494 강혜원 P0027957 경주동국대부설유치원 S0008582 고문희 P0038535 고희식 P0038534 구분수 P0038153 구인호 P0038437 구화진 P0037681 권순환 P0038347 김근호 P0038410 김기연 P0038473 김덕규 P0034285 김미영 P0038326 김미영 P0038412 김미정 P0038487 김미정 P0038880 김민숙 P0038527 김선하 P0037497 김성임 P0038113 김소영 P0038100 김시훈 P0037180 김아리 P0038757 김연수(자비성) P0038167 김윤규 P0038424 김원배 P0038338 김유순 P0034962 김은경 P0037282 김익환 P0038345 김일수 P0037568 김정미 P0038514 김정우 P0037760 김정현 P0038121 김주영 P0038522 김지영 P0038137 김지향 P0038667 김진수 P0038302 김철환 P0039207 김치하 P0009028 김태훈 P0038322 김혜영 P0038128 ㉡나인숙 P0038793 나진환 P0035108 남유정 P0038126 노영호 P0038196 노정은 P0038533 ㉢류승진 P0038202 ㉣마켓앤(사이트)주 S0038448 문경아 P0038604 문진현 P0038524 ㉤박경화 P0038612 박수경 P0037789 박연철 P0038348 박재미 P0038883 박정규 P0038280 박정태 P0038250 박종안 P0026981 박주호 P0038269 박지영 P0038119 박지영 P0038140 박진경 P0038503 박진환 P0038243 박형서 P0038670 박희정 P0038685 박훈정 P0037018 반정선 P0038289 반진경 P0037302 백금희 P0010725 ㉥서보현 P0038200 서아름 P0012824 서 원 P0038752 서은영 P0038188 성대철 P0038134 성현미 P0013968 손건수 P0038272 손기호 P0037389 손민정 P0037958 손영완 P0038493 손 열 P0037031 손은호 P0036995 손해진 P0038469 송현주 P0033684 신민철 P0038515 신선희 P0038179 신영진 P0038245 신윤민 P0038300 신현삼 P0037236 신형철 P0038673 ㉦안정희 P0022448 안해진 P0023148 양선혜 P0037359 엄기만 P0038109 엄영주 P0038751 예종수 P0038039 오경성 P0038127 오수원 P0038291 유헌국 P0038421 율담 P0038199 우혜진 P0038610 위순민 P0038133 유덕원 P0037665 유미란 P0038281 유은주 P0038293 육석근 P0038139 윤대진 P0038110 윤미옥 P0004493 윤정남 P0009941 이경림 P0035633 이경화 P0037780 이관희 P0038279 이광준 P0029072 이규리 P0037248 이병은 P0038674 이미정 P0038460 이보비 P0038166 이상훈 P0011857 이상희 P0037832 이숙희 P0038651 이순석 P0037024 이승현 P0038144 이영란 P0034789 이영미 P0038168 이영숙 P0038140 이영자 P0028720 이영준 P0038215 이우영 P0038314 이윤정 P0023378 이은경 P0038107 이정아 P0038294 이정화 P0038176 이종은 P0038172 이종택 P0038285 이주형 P0038684 이준안 P0037667 이현ભ P0038621 이현정 P0038189 이현주 P0037249 이해정 P0038305 이효영 P0038174 이효진 P0028654 임애림 P0038201 임재성 P0037946 임현수 P0038606 임희정 P0037285 ㉧장사진 P0038282 정몽숙 P0038418 정근선 P0038688 정재희 P0038683 정정진 P0038132 장재리 P0005734 장희숙 P0038943 전승훈 P0038502 전순필 P0038526 전찬기 P0038483 전찬용 P0038481 전창희 P0038620 정광훈 P0038284 정다운 P0038195 정몽식 P0038304 정민성 P0038268 정지윤 P0038344 정항미 P0030778 정현경 P0038296 정현미 P0038123 정현정 P0037260 제순희 P0003373 조경화 P0038125 조귀숙 P0034669 조명욱 P0037956 조성은 P0038517 조소라 P0038129 조윤영 P0038092 조은미 P0038178 조한숙 P0027030 주정애 P0038299 지혜정 P0038609 ㉨차성주 P0038532 차형석 P0037392 최경순 P0012305 최근창 P0039124 최동열 P0037176 최미정 P0038672 최보림(연꽃마을) P0039111 최은순 P0035752 최은정 P0037305 최지선 P0038318 최환석 P0021975 ㉩허수진 P0038135 하종미 P0038173 한길수 P0038749 한민현 P0038750 한수정 P0038335 한양순 P0005167 허가태 P0038192 현보라 P0038521 홍순철 P0037971 홍진현 P0038530 최가의목수 그리고가구 S0038786 황수민 P0038490 황희용 P0035450 황현주 P0037262

## 북한어린이돕기

545차일상에서케어있기 S0038881 61차일상에서케어있기 S0038805 62차일상에서케어있기 S0039252 ㉠김미성 P0037242 김미애 P0038461 김미정 P0038010 강수정 P0038595 강순천 P0006161 강은희 P0032602 김재철 P0038171 김현정 P0038516 경기산업(주) S0038808 경창수 P0038633 고문희 P0038535 고산산촌유학 P0039249 고은정 P0038165 고희식 P0038534 광승우 P0038104 구분수 P0038153 구인호 P0038437 구화진 P0037681 군포금정중 P0038303 권순환 P0038347 권오봉 P0038278 권종률 P0038601 김경만 P0038138 김경아 P0038231 김경은 P0038146 김경환 P0038608 김경희 P0038331 김광경 P0038270 김근호 P0038410 김기연

P0038473 김나영 P0038275 김도완 P0037410 김영 P0037972 김맑음 P0038274 김영숙 P0026030 김문영 P0037664 김미경 P0037387 김미영 P0038326 김미정 P0038487 김민경 P0038150 김민재 P0038154 김민정 P0038463 김범석 P0031040 김병도 P0038069 김병찬 P0031046 김석희 P0034397 김선하 P0037497 김성미 P0038155 김수경 P0038630 김수진 P0004003 김순남 P0018394 김시훈 P0037180 김신성 P0038251 김애영 P0037217 김영주 P0038330 김영호 P0038120 김예람 P0038101 김예지 P0037967 김원배 P0038338 김유순 P0034962 김유진 P0033917 김은경 P0038267 김은주 P0037259 김은하 P0014100 김재성 P0037748 김재훈 P0008080 김장미 P0038514 김장수 P0010306 김장아 P0038471 김장우 P0037760 김장임 P0023805 김정현 P0037268 김정현 P0038121 김종현 P0030509 김지영 P0038137 김지향 P0038667 김진환 P0022168 김천호 P0038645 김태훈 P0038322 김현곤 P0010443 김현옥 P0010576 김현정 P0026933 김혜란 P0038456 김혜영 P0038128 김혜현 P0038122 ㉡남유정 P0038126 노영호 P0038196 노혜경 P0038511 능연스님 P0038755 ㉢동양매체(주) S0038807 ㉣류승진 P0038202 ㉤명미숙 P0037277 문경아 P0038604 문근아 P0038600 문진현 P0038524 ㉥박경애 P0039206 박경화 P0038612 박기원 P0038057 바다순 P0038847 바다순 P0038846 박동수 P0038882 박삼미 P0036272 박성희 P0038247 박스녀 P0017814 박순하 P0034473 박승찬 P0038241 박신국 P0018969 박연철 P0038348 박영은 P0035945 박은영 P0038141 박은현 P0029214 박을순 P0005230 박종천 P0039108 박주현 P0036653 박주희 P0038520 박지영 P0038119 박진경 P0038503 박진환 P0038243 박해준 P0038298 박훈정 P0037018 박홍남 P0038290 박홍식 P0038276 박희진 P0036992 반정선 P0038289 방정자 P0019871 배경문 P0030476 배광환 P0038614 배우연 P0038292 변용주 P0038197 ㉦상경중4학년6반 P0038504 서민지 P0038103 서수일 P0016513 서윤덕 P0038531 서유희 P0038117 서은영 P0038466 서정욱 P0031041 서지아 P0038193 서현숙 P0038639 서효영 P0038105 설경혜 P0022593 생기실 P0025764 성남시공무원봉사회 S0038966 성대철 P0038134 성산북곡교사교육원 S0039113 성애자 P0037773 성현미 P0013968 손기호 P0037389 손미희 P0015320 손영완 P0038493 손정민 P0020289 손해진 P0038469 송세라 P0038339 송재민 P0038071 송지영 P0038177 송지혜 P0029687 송희정 P0038762 신선연 P0038596 신선희 P0038179 신세영 P0038068 신승남 P0023149 신영진 P0038245 신윤민 P0038300 신윤정 P0037833 신형철 P0038673 심상신 P0021173 ㉧안국화 P0037663 안윤호 P0038066 안정현 P0037232 안해진 P0023148 양산신(가톨릭학교) 6학년 4반 P0038634 양선혜 P0037359 양호근 P0036951 엄기만 P0038109 엄수연 P0014578 여인옥 P0026342 여해경 P0038273 영남부초등학교 5학년 7반 어린이들 S0038624 예종수 P0038099 오선영 P0037777 오아혜 P0037749 오해주 P0039212 와인인포 S0038810 율담 P0038199 우혜진 P0038610 원영숙 P0038106 유덕원 P0037665 유미 P0028100 유순남 P0038945 유은주 P0038293 육석근 P0016573 윤대진 P0038110 윤미경 P0038055 윤상훈 P0037666 윤석 P0033863 윤오복 P0038538 윤용희 P0038519 윤지은 P0038458 윤태현 P0027407 은병욱 P0039254 이경화 P0037780 이관희 P0038279 이광렬 P0007000 이광민 P0032409 이규리 P0037248 이길수 P0038050 이남미 P0038194 이동환 P0038443 이무희 P0038453 이미림 P0038464 이미정 P0038460 이보람 P0036775 이보비 P0038166 이상만 P0038611 이상희 P0032000 이수열 P0038518 이수영 P0038115 이숙미 P0011089 이승현 P0038144 이연희 P0036866 이영란 P0034789 이영미 P0038168 이영아 P0038066 이영준 P0038215 이위선 P0021377 이우경 P0038067 이윤정 P0023378 이은경 P0038107 이은영 P0038054 이은희 P0037309 이장ભ P0035930 이재연 P0037291 이창기 P0038844 이정아 P0038294 이장택 P0038011 이정화 P0038176 이정훈 P0038208 이종택 P0038285 이준안 P0037667 이지현 P0038479 이지형 P0038157 이진실 P0006534 이창현 P0038258 이현주 P0037249 이혜선 P0037234 이해정 P0038305 이효영 P0038174 이효진 P0028654 임보민 P0038131 임순연 P0038669 임애림 P0038201 임정희 P0038190 임희철 P0038295 ㉨장명희 P0010630 장성경 P0038528 장선미 P0036335 장성호 P0038598 장순봉 P0013004 장문서 P0038965 장정숙 P0038242 장혜민 P0021964 장상희 P0025771 전순미 P0038488 전순필 P0038526 전연호 P0038512 전재영 P0037904 전찬기 P0038483 전해나 P0036876 전해경 P0038009 전휘찬 P0038012 정경미 P0038489 정광 P0038255 정몽식 P0038304 정은석 P0033145 정민성 P0038268 정민순 P0038130 정성숙 P0036739 정지윤 P0038344 정진혁 P0014240 정진숙 P0014237 정태호은희 P0038507 정현미 P0038123 정현주 P0037233 정효영 P0038252 조광미 P0038256 조명숙 P0038213 조명욱 P0037956 조선희 P0038455 조성은 P0038517 조세용

P0038472 조승란 P0038136 조영민 P0037167 조영진 P0037209 조은미 P0038178 조은주 P0038065 주영일 P0032309 주윤선 P0029911 주윤아 P0037671 주정애 P0038299 중앙대H85오일 S0039112 지혜정 P0038609 진영우 P0038271 ㉢차선진 P0037299 차성주 P0038532 차형석 P0037392 채선혜 P0037969 채승실 P0038145 최경순 P0012305 최경호 P0038436 최희정 P0037559 최대욱 P0038900 최수영 P0038263 최연주 P0037289 최윤정 P0038529 최은송 P0035752 최은정 P0037305 최태종 P0037556 최환석 P0021975 최환석 P0038008 최희선 P0038059 ㉣편유미 P0037670 ㉥허수진 P0038135 하종미 P0038173 하현주 P0037900 한수정 P0038335 허가태 P0038192 하준희 P0038480 현보라 P0038521 홍성철 P0038315 홍영일 P0031982 화해와일치교회(유진선) P0034159 황경아 P0037014 황숙경 P0038740 황정현 P0038060 황해숙 P0037965 황홍일 P0008912

## 북한재민

㉠김애솔 P0037290 경주동국대부설유치원 S0008582 고희식 P0038534 광홍식 P0028252 구인호 P0038437 권지은 P0019451 권태형 P0015039 김근호 P0038410 김영 P0037972 김미경 P0037387 김반아솔 P0010721 김선하 P0037497 김소영 P0038100 김명준 P0018225 김지태 P0038124 김재성 P0038322 김형호 P0038099 ㉡마선아 P0022840 문근아 P0038600 ㉢박동호 P0021557 박재성 P0038416 박주홍 P0037950 박지현 P0007626 ㉣서울금천교 P0038297 성대철 P0038134 성현미 P0013968 손기호 P0037389 손영완 P0038493 신석일 P0038506 신승남 P0023149 신현진 P0038712 ㉤양광모 P0037293 오영란 P0025338 유승희 P0038648 윤해정 P0016414 이관희 P0038690 이광호 P0037292 이미정 P0038460 이소영 P0038735 이숙한 P0037129 이숙희 P0034158 이옥순 P0023856 이혜선 P0037807 이혜원 P0037320 이효정 P0004265 ㉥정지윤 P0038344 조영민 P0037167 조영희 P0038328 조진훈 P0038438 주미영 P0038220 주연순 P0038091 주윤선 P0029911 지혜정 P0038609 ㉦차성주 P0038532 최선호 P0036866 추혜숙 P0038417 ㉧하종미 P0038173 하인호 P0038218 홍석희 P0038440

## 결핵퇴치

㉠김미성 P0037242 고희식 P0038534 구인호 P0038437 김근호 P0038410 김기연 P0038473 김미정 P0038487 김선하 P0037497 김성미 P0038155 김유진 P0033917 김익환 P0038345 김주영 P0038522 김태훈 P0038322 ㉡성대철 P0038134 성현미 P0013968 손해진 P0038469 신선희 P0038179 신지민 P0037303 ㉢안수민 P0038143 양선혜 P0037359 이관희 P0038279 이미정 P0038460 이선화 P0038287 이승현 P0038144 이은경 P0038107 이진우 P0038594 이혜선 P0037807 ㉣정몽식 P0038304 정지윤 P0038344 지혜정 P0038609 ㉤차성주 P0038532 최경순 P0012305 ㉥하종미 P0038173 허가태 P0038192

## 인도모자보건

㉠강창형 P0021494 고희식 P0038534 김경남 P0037279 김근호 P0038410 김기연 P0038473 김도완 P0037410 김맑음 P0038274 김미경 P0037387 김미정 P0038487 김선하 P0037497 김성호 P0036870 김원배 P0038338 김은주 P0037259 김지영 P0038137 김진아 P0028405 김태훈 P0038322 김현정 P0026933 김혜현 P0038122 ㉡노경은 P0038533 ㉢문경아 P0038604 문덕희 P0038341 ㉣박경화 P0038612 박기석 P0038142 박영은 P0035945 서윤덕 P0038531 성대철 P0038134 성현미 P0013968 신선희 P0038179 신영진 P0038245 ㉤엄상호 P0028958 연꽃마을 S0039204 윤정훈 P0039121 윤주영 P0038333 이선화 P0038287 이영준 P0038215 이은경 P0038107 이현정 P0038189 이해정 P0038305 ㉥장성진 P0038528 장정숙 P0038242 장미음 P0038195 정지윤 P0038344 정현정 P0037260 조소라 P0038129 조승란 P0038136 조진주 P0038629 조철호 P0036803 주영일 P0032309 지혜정 P0038609 진영우 P0038271 ㉦차성주 P0038532 최윤정 P0038529 최은표 P0024076 ㉧하종미 P0038173 허가태 P0038192 홍수진 P0031610 홍지민 P0038316

# 특별후원금

2009년 2월 1일~2009년 3월 31일

## 인도후원

㉠김영수 30,000 최홍신 30,000 20차서지순례김선에 50000 60차 일개수련생 1,465,270 강양중 100,000 경주동국대부설유치 1,206,500 고령에서삼구재보시 300,000 구상은 60,000 구윤희 50,000 김동미강 200,000 김미정 50,000 김민지 20,000 김민하 100,000 김범석 10,000 김성순 500,000 김소영 217,000 김연수 김나비 18,740 김말미 50,000 김장순 4000 김종근 20,000 김진수 100,000 김창희(경기) 50,000 김철환 100,000 김판철 287,000 ㉡대천마을학교 50000 ㉢로타리3690 10,000,000 ㉣마켓인사이트(주) 1,462,000 마켓앤(사이트)주 2,560,720 무주상보시 4000000 문물회 100,000 ㉤박영애 100000 박윤철 20,000 박정순 40,000 박정순 20,000 박정태 10,000 박정희 100,000 배낙형 100,000 배수민 20000 백영일 100000 백천정학재단 10000 블람 usa 2000 분당열린교회(이정옥) 30,000 ㉥손민정 20,000 송민령 100,000 숙대약대졸업생 300,000 신윤민 10,000 신창용 3,000,000 ㉦안정희 56,460 동진쌍곡빌 6,000 을주원 100,000 을주원 500,000 이경림 10,310 이광준 120,000 이근만 100,000 이상옥 30000 이순희 6,430 이종욱 100000 이종진 24,000 이주형 500,000 이진일 7,000 이티/정영임 100달러 이현ભ 10,000 임복순 700,000 임영광 70,000 임재성 10,000 장공주 20000 장삼열(지오스남) 300000 정몽성 10,000 정재희 1,200,000 정몽식 10,000 정민홍 10,000 정항미 30,000 제순희 500,000 조정희 71,000 ㉧최동열 3,000 최보림(연꽃마을) 50,000 최지선 30,000 ㉨허지현 100000 하재남 142,000 한살림성남용 2,030,000 최가의목수 그리고가구 56,520 황수민 30,000

## 북한돕기

545차일상에서케어있기 64,000 61차일상에서케어있기 442,000 ㉠가나유통 300,000 강동순 50,000 강영숙 20000 강애솔 10,000 강경순 100000 경기산업(주) 500,000 경남한살림 30,000 경주동국대부설유치 1,206,500 고경희 40,000 광승우 10,000 교각(하관) 280,000 구영희 1,500,000 군포금정중 120,000 권나연 50,000 권순경 100,000 권지은 40,000 권태형 100,000 김계향 50,000 김기연 장학금 415,000 김광성 100,000 김반아솔 10,000 김바치 5000 김바치 50,000 김소영 180,000 김소영 110,000 김순경 70,000 김순자 20,000 김영애 100,000 김요기 100,000 김재성 340,000 김재미 50,000 김경미 50,000 김경임 50,000 김혜송 300,000 김태권 31,000 김현민 50,000 김현정 50,000 김형호 20,000 김혜숙 30000 김희정 5,000,000 ㉡동양매체(주) 2,197,000 ㉢류형준생숙,류정훈 입학축하 200,000 ㉣마선아 50,000 매표교환기 7,962,970 문안정 150,000 ㉤박경애 300,000 박경열 50,000 박동수 200,000 박동호 500,000 박득영 70,000 박순환 100,000 박영기 20,000 박영미 80,000 박윤희 2,500,000 박은현 500,000 박재성 12,000 박주홍 10,000 박종현 180,000 박지현 7,000 박현석 20,000 박혜숙 100,000 배낙형 100,000 ㉥서석근 2,000,000 서울금천교 100,000 성남시공무원봉사회 855,000 성산북곡교사교육 813,000 성인혁 30,000 손슬리 50000 손영완 100,000 손정민 50,000 송화정 166,000 신윤민 10,000 신지은 1,000,000 심길복 40,000 심상신 100,000 ㉦안광민 100,000 안찬주 161,000 안영미 30,000 안정현 10,000 양광모 5,000 양보형 70,000 양산신(가톨릭학교) 6학년 4반 51,380 양재진 70,000 엄기만,김태현,김현진,전후공 20,000 엑스포아트비드미 30,000 예애일 5,000 여인옥,여승진,여승은 30,000 여인옥,여승진,여승은 30,000 여인옥,여승진,여승은 30,000 여인옥,여승진,여승은 60,000 여인옥,여승자,여승은 30,000 여미원 5,000 염동근 50000 오근 150,000 오영란 80,000 오인숙 100,000 와인인포 995,000 유미 50,000 유승희 100,000 유영도 300,000 유재민 100,000 유재현 200,000 유재현 200,000 유지원출입축하 50,000 윤영숙 50,000 윤선옥 121,070 윤태현 50,000 은병욱 100,000 이각심 70,000 이경민 100,000 이경민 80,000 이관희 1,000,000 이광렬 58,000 이광호 5,000 이근만 100,000 이덕기 100,000 이상고 300,000 이상고 100,000 이소영 30,000 이승한 10,000 이승혁 10,000 이승희 30,000 이영자 100,000 이옥순 10,000 이위선 30,000 이원진 100,000 이원진 116,000 이인순 30,000 이재현 10,000 이정순 70,000 이자 3000 이원철 10000 이충희 10,000 이태조,이서영 생활축하 400,000 이혜선 150,000 이효정 100,000 임상준 200,000 임춘옥 200,000 임태현 1,100,000 임용민 10,000 ㉧잠미나-커민.장한솔1만장재혁만 30,000 장승룡 20,000 장유복 100,000 장윤서 20,000 장진영 105,000 전승이 10,000 정민호 10,000 정순희 30,000 정승숙 100,000 정유성 100,000 정재우 100,000 조대제 220,000 조영태 22,000 조영진유숙수 30,000 조윤정 돌가림 1,000,000 조윤제 100,000 조진용 30,000 조진용 30,000 조혜진 30,000 주미영 50,000 주연순 20,000 충산고등학교 2학년 13반 40000 ㉨최선호 10000 최선호 10,000 최영일 80,000 최은경 100,000 추혜숙 20,000 ㉢코아벨(주)이현철 70,000 ㉣하은미 100,000 하은이 800,000 하은이 60,000 하은정 42,000 한경숙 60,740 한성미 10000 한진미 34,000 할머니 30000 하인호 30,000 홍석희 500,000 황순옥말 생일 축 50,000

## 결핵퇴치

㉠김대일 150,000 ㉡이진우 50,000 이혜선 150,000

## 인도모자보건

㉠김세정 100,000 ㉡윤정훈 30,000 ㉢조금자 10,000 ㉣한영태 14,000

# 나눔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9년 2월 1일~2009년 3월 31일

## → 경주

김희준 31,960 무명 18,700 양애자 12,750

## → 광주

김판철 28,700 백채선 34,000 비아신용협동조합 30,020 송희정 166,000 오연남 19,740 유숙향 15,350 카롤라스 18,410 한봉길 37,610 화가와목수그리고가구 56,520 황경임 15,680

## → 대구

권혁중 24,360 김승자 40,950 김영중 14,810 김지혜 36,340 류기람,류재홍 16,890 류정목 24,360 무명2개 20,700 박정원 26,160 박정훈 22,810 윤여영 32,140 이수미 23,670 이진화 13,380 장선숙 35,390 장승미 108,400 전봉철 26,420 전원영 29,520 조현구 35,820 차승호 14,320 칠곡소망어린이집 25,470 허을 20,090

## → 대전

김민건 29,390 김산들에 25,730 김은주 44,070 무명 7,970 송한익원 17,090 은태화 25,000 이규재 9,700 이기선 10,000 장완수 22,000 장지원 47,480 조주호 24,700 최재귀 18,870 최진실 42,000 행복한밥상 17,000 홍순여 11,270

## → 동래

강해원 48,870 권규태,규빈 410,550 김난새 15,900 김동근 4,800 김민정 36,560 김양중 9,140 김여옥 70,430 김종희 15,640 노설영 10,060 무명 21,450 무명 14,190 무명 16,900 무명 16,700 무명 18,180 무명 18,250 박소영 6,110 박정화 28,730 배윤영 14,590 백정자 21,020 서호성 67,020 이남주 12,490 이상수(엄지영) 25,200 이향순 33,570 전다늘 8,970 정원철 20,850 정인숙 40,570 정철상 57,620 정혜원 18,330 징검다리눔는아이들 19,840 최정숙 51,260 허연차 49,820 허연화 8,470

## → 마산

강윤규 18,620 김경규(한살림) 35,560 김삼선 66,020 김영석 22,630 김영순 19,650 서정숙 5,640 안춘제 13,700 이명남 30,060 이은지 29,320 전찬웅2개 49,390 정순이2개 76,930 주대호,승희 26,270 최찬일 24,400 하동연 31,630 하정아 21,580 합포내과 24,920

## → 서울

공경수 40,450 광노길 16,230 광명옥 27,960 권재영 29,580 김미경,김정자 45,220 김민석 21,700 김석순 35,450 김소영 9,690 김창수 14,680 김홍근 25,080 남소영 14,230 남소영 20,890 레인보우 25,690 무명 17,960 무명 40,110 무명 24,090 무명 21,200 무명17,990 무명 13,000 무명 33,860 무명 4,500 무명 17,420 무명 19,430 무명 303,740 무명 24,000 무명 8,390 무명 14,680 무명 29,340 무명 15,070 무명 3,030 무명 21,130 무명 4,330 무명 22,710 문승주 17,550 민충선 12,730 민충선 35,580 민충선 16,130 박미란 20,890 박소정 21,500 박순천 9,200 박은숙 31,800 서옥희 25,120 서초유원 GS25 13,930 석정훈 37,900 손순택 25,250 손은진 11,500 송영희 25,400 송은진 11,500 신주리 5,620 심을택 27,150 심을택 25,390 양산산기초 51,380 양승범 45,480 양희용 22,210 연꽃마을 21,900 오말순 21,350 오해빈,오선재 28,250 왕선희 23,370 웅빈각오복이 24,270 **우이초등학교2-8반 13개 132,780** (김도희 10,300 노윤호 3,880 서원빈 13,180 윤세진 5,980 이선우 14,150 이승주 5,610 이주현 2,290 장해진 37,100 최혜령10,750 하재영 4,550 하채영 19,550 한민영 1,220 허지수 4,220) 유용걸 20,390 유용걸25,570 유용희 26,450 유용희 27,730 이동호 48,940 이동호 48,500 이서운 13,460 이서운 21,430 이은숙 29,680 이준호,이윤주 29,900 이종각 20,800 장길호 60,410 장윤선 17,830 장현지 28,650 장혜령 21,220 정창자 23,480 최원중 58,520 최은경 17,790 한준희,두연,서연,지민 16,220 황림사 21,480 혜천약국 47,850

## → 울산

김연수나연 18,740 나이스마트 18,190 대우증권울산지점 9,050 대우약국 22,650

대호공업사 30,590 바이더웨이신정점 16,380 신한약국 18,110 여승은 30,410 우리들편의점아이파크점 26,500 울산숯불갈비 25,160 **월계초등학교 27개 325,850** [1-3반김동미 7,850 김미운 4,360 김민성 2,140 황유연 3,160] 3-5반(3-5반 85,210 김근아 3,200 김동연 700 박철우 3,150 김연지 7,640 김영진 11,780 김예림 7,420 김한나 4,770 김철우 86,430 손영찬 5,170 안규리 4,730 오한재 18,010 이상은 2,230 이재원 5,370 이지혜 880 이진수 14,920 이해지 800 임다정 16,920 임수연 12,200 장유정 7,890 정상우 1,000 정은지 2,670 정혜림 5,250) 이세한의원 15,970 이순희 6,430 임경수 13,870 정인권 36,270 조춘희 10,310 축협아름지점 15,260 축협울산남지점 18,320 태화병원 14,210 한빛치과 17,270 해운대삼계탕 24,850

## → 제천

관자재보살님 27,560 김관수 6,650 문지우 34,600 이병욱 27,050 최정훈 32,790 한동길24,410 허명순 24,410 황보미 26,020

## → 청주

기흥진 35,480 김민석 13,550 김보경 9,200 김정심 17,140 민안자 23,070 박노옥 24,380 박노옥 17,580 박준자 26,030 이순자 24,550 이영미 80,230 이은선 28,020 이한주 15,340

## → 해운대

해운대법당 602,290

## | 거리 모금 현황 |

경주 4,000 대구 1,754,190 대전 554,000  
 동래 430,660 마산 3,355,670 서울 1,038,780  
 울산 208,650 해운대 935,310 방콕 223,200

## | 후원 물품 |

신발 - 3박스 황인웅(부산 해운대구 우2동 썬이웅원)



이곳에 돌칠 하세요

"나는 행복한 삶,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후원자료를 받아보실 주소	
<b>지포를 원하시는 분</b>	
<b>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b> 예금주 주민번호와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은행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서명 (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b>카드결제를 원하시는 분</b> 카드종류와 유효기간을 꼭 기록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롯데카드 <input type="checkbox"/> 국민카드 <input type="checkbox"/> 외환카드 <input type="checkbox"/> 현대카드 <input type="checkbox"/> 신한카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카드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카드유효기간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카드주 성명
<b>원하시는 후원금에 V표 해주세요</b>	
<input type="checkbox"/>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input type="checkbox"/> 결핵퇴치	
<input type="checkbox"/> 모자보건	
<input type="checkbox"/> 복한개발	
<input type="checkbox"/> 해외긴급구호	

안으로 접으세요



후원자님의 정확한 정보 변경은 또 하나의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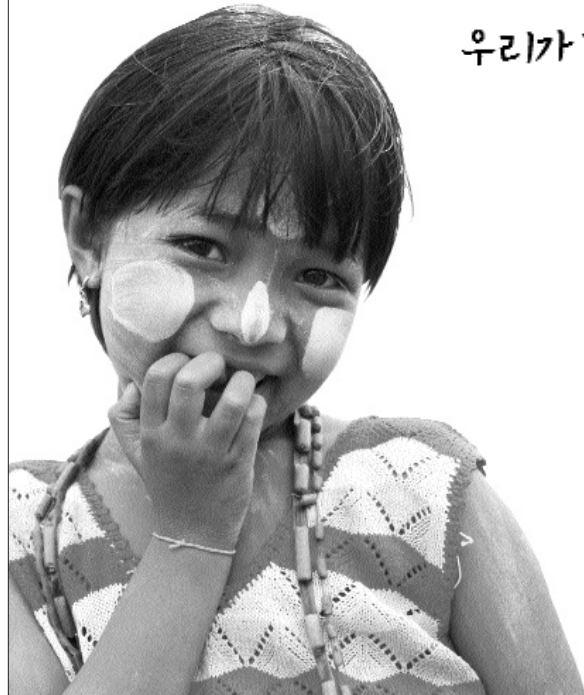
JTS의 정성이 담긴 편지, 소식지와 이메일이 되돌아왔어요. 전화드렸는데 사용하지 않는 번호래요, 후원자님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상담실 02.587.8992

## JTS 기부 계좌 [예금주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로번호 6921361]

- 국민은행 086-01-0339-254 외환은행 108-22-03140-0
- 제일은행 427-10-011141 기업은행 216-043061-04-013
-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우체국 013755-01-003667
- 신한은행 140-003-96342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나눔저금통)
- 농협중앙 044-01-094677
- 우리은행 430-04-119833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에서 부여한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 기아·질병·문맹퇴치 민간기금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JTS**입니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8.5.4~2010.5.3  
서울서초우체국  
제1183호



**JTS**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www.jts.or.kr 전화 02)587-8995, 587-8756

1 3 7 - 8 7 5